

고용·수출 한파

공공기관 채용 축소...2017년 이후 최저

기재부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올해 공공기관이 정규직 직원을 2만2000명 이상 신규채용한다.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정원을 줄이면서 신규채용 규모도 감소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일부터 이틀간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에서 13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열고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계획을 밝혔다.

◇올해 2만2000명 이상 신규채용=2017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올해 고용시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선의 목표로 삼고 노력하겠다"며 "우선 고용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인 공공기관은 올해 총 2만2000명 플러스알파(+α)를 신규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2017년 2만 2659명 이후 6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다.

신규채용 규모는 2017년 이후 2018년 3만3894명, 2019년 4만1322명으로 늘었다가 2020년 3만 736명, 2021년 2만7053명, 지난해 2만5542명에 이어 올해까지 4년 연속 감소세다.

다만 기재부는 최근 수년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부가 신규채용으로 집계돼 채용 규모가 커진 측면이 있다며 이런 특이 요인을 제외할 경우 2017~2022년 평균 신규채용 규모는 2만 5000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규직 2만2000명 신규 채용...4년 연속 감소세

고졸·장애인 확대...어학성적 최대 5년으로 연장

추 부총리는 올해 채용 규모와 관련해 "간간 비대한 공공기관을 효율화하면서도 신규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예년 수준의 채용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44만9000명 중 2.8%인 1만2442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원 조정은 인위적 구조조정이 아닌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그럼에도 신규채용 규모 축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이날 청년 구직자들과 만나 "공공기관이 청년 일자리를 소화하면 좋겠지만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며 "일없는데 사람을 채용하고 이러면 세금이 낭비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자들에게도 "지난 정부에서 지나치게 많은 수의 공공기관 인원 확대가 있었고 그게 일정부분 방만 경영으로 지적이 됐다"며 "사실 그 전에 보면 공공기관 채용이 대개 1만~2만명 사이였는데 올해는 2만명이 훨씬 넘는 (정규직) 채용과 인턴 채용을 할 예정이기에 과거 평년보다 오히려 많은 숫자"라고 강조했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 축소 등 고용 한파가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작년 이례적으로 80만명 이상 취업자가 증가했는데 예년 경기가 통상적 흐름을 보일 때 취업자 증가는 30만명 안팎이었다"며

"올해는 기술적 부분의 조정 과정이 있는 해고 실업률이나 고용률 지표도 보면 그렇게 나쁜 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졸·장애인 채용 늘린다=어학성적 인정 기간 최대 5년으로 연장=추 부총리는 "고졸, 장애인 채용 등 사회형평적 채용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며 고졸 채용 비율은 지난해 7.5%보다 높은 8% 이상으로 늘리고 장애인고용률은 법상 의무고용률 3.6%를 웃도는 4%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들이 취업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 인턴을 작년보다 2000명 늘어난 2만1000명으로 확대하고 리서치·분석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 채용 때 내는 토익(TOEIC)·토플(TOEFL)·아이엘츠(IELTS) 등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한다는 방침도 박람회에서 홍보한다.

이번 채용 박람회에서는 138개 공공기관이 채용 계획, 절차, 직무 특징 등을 소개하고 구직자 상담을 제공하는 부스를 운영한다. 이 중 34개 공공기관은 채용 설명회도 진행한다.

일대일 맞춤형 상담 형식의 '올인원 컨설팅'이 새로 생겼으며 장애인 채용 상담관, 직무·성과중심보수관리 홍보관도 처음으로 설치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전남 중기 경기전망 소폭 상승

고금리와 고물가 등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이달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의 경기전망이 소폭 상승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달 13일부터 20일까지 광주·전남 중소기업 20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2월 경기전망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중소기업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79.5로 전월(77.8) 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 전년 동월(80.8)에 비해서는 오히려 1.3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광주는 전월(77.0) 대비 1.4포인트 상승한 78.4로 전망됐고, 전남은 전월(78.7) 대비 2.0포인트 오른 80.7로 전망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79.7로 전월(77.0) 대비 2.7포인트 상승, 비제조업도 79.3로 전월

(78.6) 대비 0.7포인트 올랐다.

광주·전남 경기전망지수는 지난 1월에(77.8) 이어 2개월 연속 80선을 밑돌고 있는 데다,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당분간 보험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목별 전망을 보면 내수판매(76.8→79.8), 수출(84.0→94.0), 자금사정(73.4→78.3)과 역계열 추세인 고용수준(97.1→95.9) 전망은 전월에 비해 상승했다. 경상이익(78.5→76.3)만 전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달 광주·전남 소재 중소기업들의 주된 경영예로는 인건비 상승(65.9%)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내수부진(49.8%), 원자재 가격 상승(48.8%), 업체간 과당경쟁(38.5%), 물류비 상승 및 운송난(34.1%) 순이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한도 2배로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정책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및 한도가 3월부터 확대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은 올해 하반기부터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일정 한도에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더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부 프로그램을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선된 프로그램은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3월 초부터 시행된다.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천만원(법인인 1억원)까지 5.5%(보증료 제외)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뀌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지원 대상이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

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대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소기업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2배로 상향 조정한다.

한도 확대에 따라 상환 일정은 종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만기 5년)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만기 10년) 방식으로 바뀐다.

보증 부담도 낮췄다. 보증료를 10년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했으며, 보증료율은 연간 1%에서 0.7%로 0.3%포인트 내렸다.

보증료를 최초 대출 시점에 전액 내는 경우 납부 총액을 15% 할인해준다.

신청기한은 애초 올해 연말까지였으나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새해 연부 예산 편성으로 프로그램 재원이 확대되면서 목표 대출 규모는 기존 8조5000억원에서 9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수출 녀 달째 마이너스... 月 무역적자 '역대 최대'

1월 수출 462억7000만달러 전년비 16.6% 줄어... 126억9만달러 적자

우리나라 수출이 새해 첫 달부터 감소하며 녀 달째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출액은 462억 7000만 달러(56조90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554억6000만 달러)보다 16.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액은 589억5000만 달러(72조6000억원)로 전년 대비 2.6% 줄었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약화된 것이 지적된다. 4개월째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코로나 확산 초기인 2020년 3~8월 이후 처음이다.

다만 지난해 1월 수출이 역대 1월 최고 실적을 낸

데 따른 저저효과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달 60억 달러에 그쳤다.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과 수요 위축으로 작년 동월(108억달러) 대비 44.5% 급감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27.8%)보다 낙폭을 더욱 키우며 5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 감소액(-48억달러)은 전체 수출 감소액의 52%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도체 외에도 지난달 디스플레이(-36.0%), 철강(-25.9%), 석유화학(-25.0%) 수출도 글로벌 수요 둔화의 악재를 피하지 못해 작년 동기 대비 감

소했다. 반면 선박(86.3%), 자동차(21.9%), 석유제품(12.2%), 이차전지(9.9%) 수출은 증가했다.

수입액에서는 3대 에너지(원유·가스·석탄)가 지난달 157억9000만 달러로 전체의 26.8%를 점했다. 지난달 에너지 수입액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월 에너지 평균 수입액(103억달러)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126억9만 달러(15조6000억원) 적자로, 월간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1개월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5년 1월~1997년 5월 연속 적자 이후 25년여 만에 처음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경주 원장 선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이경주(55·사진) 전 전남대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사업단 본부장을 9대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진흥원은 지난달 6일 공모 지원자 7명 중 4명을 면접 대상으로 선정하고, 11일 최종 2명을 원장 후보자로 추천해 30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새 원장을 선임했다.

이 원장은 전남대 기술지주회사 전략실장, 브이아이티시스템 대표 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창업 분야 경력을

쌓았다. 원장 임기는 오는 11월부터 3년이며 취임식은 13일 열린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49.80(+24.72)
▲ 코스닥	750.96(+10.47)
↓ 금리(국고채 3년)	3.263(-0.062)
↓ 환율(USD)	1231.30(-0.60)



드라이버와의 만남 현대자동차는 서울 양재동 본사 1층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드라이버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 모터 스포츠 법인(HMSG) 커스터머 레이싱 수석 엔지니어 안드레아 치조티, BRC 팀 총괄 가브리엘 리조, N브랜드매니지먼트 모터 스포츠사업부장 팀 바텐베르크, 2022 시즌 드라이버 부문 우승 미켈 아즈코나, 2019 챔피언 노버트 미첼리, 2018년 초대 WTCR 챔피언 가브리엘 타케나가 참석했다. <현대차 제공>

기아 '더 2024 니로' 출시...선호 사양 기본 탑재

기아가 1일 니로 하이브리드와 EV의 연식 변경 모델 '더(The) 2024 니로'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나섰다.

기아의 대표 친환경 스포츠 유틸리티차(SUV) 모델인 니로는 뛰어난 경제성과 상품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더 2024 니로는 고객 선호 사양을 트림별로 기본화해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신규 패키지 운영으로 고객의 선택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기아는 니로 하이브리드와 EV 전 트림에 전자식 톱머리(ECM)를 기본 적용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의 프레스티지 트림에 전자식 변속 다이얼(SBW)과 레인 센서를 기본화해 상품성을 강화했다.

또 기존 최상위 트림에서만 선택 가능했던 선루프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EV 모델의 경우 기본 트림부터 적용 가능하다.

기아는 차량의 C필러 색상 선택이 가능한 '엣지팩'에 새로운 색상 및 조합을 추가하고 '마이 콤포트 패키지'를 신규 운영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더 2024 니로 EV 모델.

전 트림에서 선택 가능한 마이 콤포트 패키지는 LED 조명이 적용된 ▲선바저 램프 ▲램프 ▲램프 ▲러기지 램프와 러기지 스크린으로 구성돼 고객 편의성도 높였다.

더 2024 니로의 판매 가격은 친환경차 세제혜택 및 개소세 3.5% 반영 기준 하이브리드 모델이 ▲트렌디 2712만원 ▲프레스티지 2975만원 ▲시그니처 3350만원이다. EV 모델은 ▲에어 4855만원 ▲에스 5120만원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